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고등교육의 재구조화

양진건\*

### I. 서론

제주국제자유도시<sup>1)</sup>는 사람,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장소로서, 결과적으로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을 위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의 질을 개선하면서 시장개방을 위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원리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창조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자적 개념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 틀은 기존 관광 및 1차 산업에 중점을 두고, 제주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투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농업 및 생명공학에 초점을 두는 연구개발산업의 육성을 통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어 및 서비스 정신의 함양을 통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기반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제주의 성장하는 경제를 지원하는 물류 및 금융서비스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교육투자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외국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설립 및 운영요건 완화, 외국인의 초·중등교원 임용 확대,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초·중등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소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본고는 외국 고등교육기관 유치 문제를 집중적으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1) 이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언급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유인물 등에서 참고.

로 논의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고등교육의 대응전략<sup>2)</sup>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외국고등교육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고등교육의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외국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회원국 의무사항으로서 교육시장 개방<sup>3)</sup>을 약속한 처지에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들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외국자본의 국내 고등교육시장 투자와 이로 인한 이윤의 잠식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서두르고 있는 세부 법률 정비 작업을 지켜보면서 제주도 역시 후속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작업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98년, 법적으로는 국내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외국대학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장벽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여러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차별화 된 특례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 허물기 작업은 대대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사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뉴 라운드(New Round)에 의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이 아직 완결도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외국대학을 유치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경제특구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국내경제구조의

2)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 2일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고등교육의 변화”를 발표하였다.

3) 외국대학 유치 문제를 교육개방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까닭에 일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쟁력 향상, 국제전문인력 양성 등의 이유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본계획<sup>4)</sup>들 가운데 교육부문과 관련하여 외국 우수대학원의 국내진입 촉진을 위해 임대에 의한 학교설립,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 면제, 이사회 구성 시 내국인 선임 의무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대학간 협약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운영, 공동학위제 허용,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허용 등의 국내·외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수업진행, 외국학생 다수 재학, 통상 및 외국문화 집중교육 등을 통한 외국계 기업 및 국제기구진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통상 등 국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여러 안들을 지켜보면서 제주도는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외국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 콤플렉스(complex)’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sup>5)</sup>하였는데 국제교육 콤플렉스는 동북아 국가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기업의 중견간부, 사회 주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전략 경영대학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기숙학교(boarding school)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과 지식 자본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SK 측은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야말로 제주도의 공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제교육복합지구의 단지화가 가시화되면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이 당연하다.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를 둘러싼 갈등 속에는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에

4)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보고서 참고.

5) SK 손길승 회장은 국제교육 콤플렉스(complex) 구성에 관한 수익성과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11월 19일 제주도에 2억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제주도는 이 기탁금을 제주 발전연구원에 주어 ‘제주 국제교육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지시했다.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고등교육 시장에 자극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과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국내교육기관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질 높은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양질의 인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고등교육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은 우리 고등교육이 역수출되는 노하우를 얻는 귀한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 2. 외국 전문대학원 유치 논리와 문제

많은 사람들은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것이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등 외국의 우수 전문대학원 (professional schools) 유치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외국 우수전문대학원의 국내진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기본계획도 그렇거니와 동북아 국가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지도자 양성과 국내외기업의 중견간부, 사회 주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전략 경영대학원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국제교육 콤플렉스 구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측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학사 과정보다 MBA 과정 등 전문대학원 과정의 유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부는 현재 외국의 대학원이 국내에 좀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sup>6)</sup>이며 정부 내에 외국대학원 유치를 전담하면서 부지 및 건물 알선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MBA 과정의 경우 17~18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6

6)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강의 윤곽은 일부 언론 발표나 교육부 자체의 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열거되는 것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이기보다는 아직 논의 중인 안들이며 2002년 연내에 확정된 안들이 발표될 것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키로 하고, 2002년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외국대학원 분교 설치는 우선적으로 세계 톱클래스 수준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 외국대학원 분교의 운영 성과와 국내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오는 2005년 이후 외국 대학과 일반 대학원의 국내 분교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외국대학원 분교 설치가 허용될 경우, MBA와 예체능계열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규정에는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을 인정하고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주는 등 내국인의 대학원 설치 규정에 비해 크게 완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등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현재 허용돼 있는 양쪽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복수학위(dual degree) 이외에 제3의 새로운 학위과정을 공동 개설해 양쪽 학위를 인정하는 공동학위(joint degree)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MBA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되, IT, BT 등 국가 전략 분야는 국내 대학에 매년 교육 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프로그램 지원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추세와 엮물려 국내 대학들도 외국대학원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가장 적극적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2003학년도 1학기부터 미국 듀크대와 양쪽 학교에서 학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석사과정 복수학위제를 도입키로 약정을 체결했다.<sup>7)</sup> 듀크대 MBA는 미국 내 랭킹 5위권 안에 들어있으며 서울대학교 측은 가능한 한 빨리 대학교 내에 MBA코스를 만들고, 이를 위해 MIT·듀크대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를 통한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은 특히 이웃나라 가운데 싱가포르<sup>8)</sup>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아시아의 경제허브를 꿈꾸고

7) 서울대와 듀크대에서 각각 1년씩 수업을 받고, 인원은 30명씩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싱가포르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를 참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학사과정보다 M.B.A과정 등 대학원 과정의 유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90년대 말부터 유명 외국대학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22개의 M.B.A 과정이 있으며 이 가운데 20개<sup>9)</sup>가 외국계 대학원이다.

싱가포르의 외국대학원 유치는 싱가포르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아니라 경제개발위원회 즉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EDB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결국 싱가포르의 외국대학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DB는 2000년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이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에 분교(Chicago GSB)<sup>10)</sup>를 세울 수 있도록 과격적인 대우를 보장하였다.<sup>11)</sup> 아시아 첫 번째 연구캠퍼스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미국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은 건물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분교를 설립했는데, 투자비용은 대략 1500만달러(195억원 상당)로서 현재 24개 국가에서 온 85명이 재학 중이며 싱가포르 기업체와 주문식으로 경영자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도이체 방크 부장, 다임러 크라이슬러 마케팅 이사, 도이체 텔레콤 간부 등 대부분 외국계 기업 간부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20개월 간의 수업을 마치면 미국과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 EDB 측은 외국 유명 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싱가포르 인재를 키울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모으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EDB는 또 프랑스의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sup>12)</sup>의 시내 분교 설립도

9) <Hemsdale Associates>, <Thames Open Learning Centre>,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Marketing Institute of Singapore>,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Asia Pacific Management Centre>, <Portman>, <Sumbershire>, <INSEAD>, <Hartford Management Centre>, <PBS Marketing & Management>, <RDI Management>, <Ngee Ann - Adelaide Education Centre>, <TMI>, <PSB>, <TMC>, <Chicago GSB>, <Center for American Education>, <Institute of Financial Management>, <AEC> 등이 그것이다.

10) <http://gsb.uchicago.edu/>

11) 싱가포르 중심가 페낭 로드<sup>12)</sup>에 위치한 문화재 '탄역니(House of Tan Yeok Nee)'를 내주는 조치를 취했다.

12) <http://www.insead.fr/Programmes/MBA/singap.htm>

허용했다. 세계적인 MB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인시아드는 지난 99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 분교를 설립했다. 유럽 비즈니스스쿨 랭킹 1위인 인시아드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 아시아 캠퍼스를 찾던 중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극으로 외국대학의 유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사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 알선은 물론이며 비용 차입과 재정보증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시아드 싱가포르분교 부지는 3000여평으로 분교에 시설 투자한 비용만 하더라도 2000만달러(260억원 상당)에 달하며 현재 21명의 교수가 35개국에서 찾아온 11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 대학 분교에는 현재 10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 교수의 수는 50여명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노력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교육이 경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에서 핀란드와 아일랜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를 통한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 전략은 이제 전략이기보다는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M.B.A와 같은 특화 과정의 대학원은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대학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덜할 뿐 아니라 수익성도 훨씬 높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한 특화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내실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판단이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대학원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수익모델이 대학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판단 때문에 최근에는 자치단체조차 외국대학원 과정을 유치하기 위해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구청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온라인 석사과정 SCPD(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를 2003년 3월부터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외국대학원 과정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국 사립대학원의 진출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 과정은 스탠포드 공과대학 교수진이 주요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강의하고, 강남구청은 수강생 모집, 관리, 시험장소 제공, 시험감독 등을 맡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대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CPD는 세계적 권위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첨단의 쌍방향 원격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재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

며, 스탠포드대학의 학위가 수여된다.

주지하다시피 외국 전문대학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수익”과 “특화”라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다.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을 인정하고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 주는 등의 외국대학원 설치를 위한 특례 규정들은 바로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대학원 유치를 경제개발위원회(EDB)가 전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교육의 논리보다는 경제의 논리에 우선한 시장주의 원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할 때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외국대학원은 언제라도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급기야 ‘교육실패’를 자초할 수 있어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매우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외국 전문대학원 유치 전략을 제주도가 채택하게 된다면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물론 이런 위험 부담은 몇 개 정도의 대학원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규모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제주도의 여건에서는 1~2개 정도의 세계적인 우수한 외국 전문 대학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2개 정도의 세계적인 전문대학원만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인센티브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철수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도의 우수 외국 전문대학원 유치는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는 물론이며 동북아 여러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 등과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외국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 콤플렉스’ 내에 외국대학원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20여 개의 외국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비해 영어인프라나 각종 노하우가 부실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영어인프라의 문제는 외국 전문대학원의 진출과 철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3. 외국대학 유치의 당위와 문제

외국대학원 대신에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다. 그런



대 대학원과 대학을 구분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많다. 왜냐하면 대학교(The University)는 애초 상당한 양의 중점을 대학원 교육에 두고 다양한 인문 분야와 전문 분야에서 상급 학위들을 부여하며, 연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는 그 규모와 학문(scholarship) 및 연구에 대한 강조 때문에 고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대학교의 전형적인 구성은 하나의 학부 대학과 일련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원(graduate schools)은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방법)의 훈련을 강조하며,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s)은 법학, 약학, 공학, 그리고 경영학 등 전문 분야에서 이론의 개발 및 적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학원과 대학을 별개의 것처럼 구분해서 그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 경제적 효율성 탓이 크다. 그렇다고 별다른 대안이 없이 대학 유치를 강조할 수도 없다.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예처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시장실패로 인한 교육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일본<sup>13)</sup>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나카소네 내각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미국대학 분교 유치를 장려하고 국고를 지원했던 일본은 한 때 세계 최대 규모인 42개교를 유치하였으나 91년 14개, 94년 27개가 폐교 신청을 하고 지금은 탕플대학과 남부 일리노이 주립대학 등 2개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지원자가 10대 1에 이를 만큼 높은 경쟁률 속에 관심을 불러 일으킨 미국대학 분교들이 일본에서 설 자리를 잃었던 원인은 외국대학 학위가 일본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외국대학 분교가 지방에서만 허용되도록 문부성이 규제한 점, 외국 대학들이 대학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를 펼치도록 장려하고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일본에 진출한 대학들의 수준이 낮은데다 비싼 등록금과 과대 선전에 실망을 느꼈고 이와 함께 일본 내의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보수적인 일본 문화의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면서 단지 어학연수 기관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쳐, 정부 지원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13) 일본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Brian J. McVeigh, 『Japanese Higher Education As Myth』, M. E. Sharpe ; ISBN: 0765609258; (June 2002)를 참고.

받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본교 중 1988년에 설립된 남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경우 니가타현과 일리노이주가 공동으로 교육경제위원회를 설립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미 본교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대학에 입학하면 동시에 본교 학생으로 관리된다. 랭귀지 코스를 거치거나 대학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미국 본교 편입이 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하는 전수학교 지위와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 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진출 유형은 독자적 운영을 하되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에 미국 대학들이 진출은 했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하였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대학원에 비해 대학의 경우는 투자의 리스크가 더욱 크기 때문에 진출은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에 의해 학교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하는 여러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외국대학은 언제라도 철수할 것이다. 대학이 철수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철수 때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은 영화 및 방송과 의료계를 누르고 다섯 번째 규모가 큰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공산도 큰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원 유치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만 놓고 볼 때는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장사 잘되는 교육만 골라서 하자는 논리는 교육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회적 효율성을 망각한, 말 그대로 경제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하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원보다는 대학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교육과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에서 대학원보다는 대학의

유치를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중등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대학 유치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가 현재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기대이기는 하지만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유학·연수자가 2002년 연말까지 36만명으로 종전 사상 최대였던 97년의 33만5,000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학, 연수 관련 송금으로 인한 이진수지 적자는 2002년보다 2003년에는 배 이상 늘어난 25억 달러에 이를 것<sup>14)</sup>이라고 했듯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데 우수 외국대학이 유치되면 상당 수의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익에 대한 송금 문제 등 다양한 규제를 철폐해줌으로써 외국대학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의 굳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대학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철폐하여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국내 대학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며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부실대학들은 자연 도태됨으로써 국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행정당국으로부터 대학교육의 완전한 해방은 많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없애줄 것이며 그만큼 대학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입시체제에서 자유로와 됨으로써 대학은 수능시험이라는 일회적이며 형식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학생 또한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국내외대학의 자율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대학을

14) <중앙일보>, 2002년 12월 11일

선택하며 건강한 대학만이 자유로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건강한 대학들은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자리 매김 됨으로써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국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정원 창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외국대학이며 아무 대학이라도 좋다는 사고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한국 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외국대학 유치에 계층 간 위화감, 일부 교육 종속화 현상, 교육 식민주의성향에 대한 우려, 외국대학 입시 과열 현상 등의 부정적 현상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 대학 설립 자유화는 외국 교육자본의 이윤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우리 교육의 자생력과 국적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육식민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

#### 4.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제주도의 특화 전략

제주도가 우수한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외국대학 유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해외의 우수한 대학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미국의 NCSCS(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나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 등의 대학 해외프로그램 공인심사협회 등과 접촉하여 조사를 하고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외국대학들의 진출 유형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외국대학이 직접 국내에 진출하여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 둘째, 국내에서 외국 소재 사이버 고등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형. 셋째,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을 통한 프로그램 및 교수의 교류를 허용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제주도가 국제교육 콤플렉스를 조성하게 된다면 단지 내에 외국대학이 직접 진출하여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며 설령 콤플렉스 조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서비스 공급을 제주도 측은 바라는 것으로 안다.<sup>15)</sup> 그러나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제 발 스스로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 내에 가만히 있어도 외국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드는데 별다른 경제적 이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주도에 들어올 이유가 만무하다. 그래서 인센티브 보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보장 문제가말로 중심 의제가 되겠지만 과연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그리고 외국대학에서 요구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첫째 유형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 외국대학 유치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1~2개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협상과정에서 우수한 외국대학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는 물론이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1~2개 정도의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등학교 입학생의 KAIST 입학 보장 조치를 보면서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외국어영재고등학교를 국제교육복합지구 단지 내에 설립하고 그 학교의 입학과 우수한 외국대학의 입학 보장을 연계시킴과 동시에 제주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정 인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안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조치는 우선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의 외국어 영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국대학에게 학생 모집을 일정 부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필자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은 고등학교와 연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함으로써 일본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외국대학들이 학생모집이 제대로 안 되자 대거 철수를 했던 점을 보완하고, 외국어영재고등학교가 기존의 여러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처럼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위험성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주도 교육청 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기존의 특수목적고 체제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거론하고 있지만<sup>15)</sup> 특수목적고의 자퇴율은 2000년

15)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국제교육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기 이전부터 외국대학(분교) 유치를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이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 정비를 기다리면서 후속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16) 2002년 10월 19일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 나선 조홍래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7%, 2001년 2.81%로 증가세를 기록, 2년 연속 1.7%수준에 그친 일반계 고교 자퇴율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자퇴율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시 학생부 기록 등 내신성적이 불리한데다 상위권 학생간 성적경쟁으로 인한 학습부적응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이며 또한 대학들의 인문계·이공계 교차지원 금지규정이 확대되면서 계열변경을 위해 자퇴 혹은 진학을 택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것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보다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외국어영재고등학교와 외국대학을 폐के지로 연결시키고 제주도 지역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정 인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하여 기숙학교(boarding school) 체제로 운영하는 공세적인 특화 전략을 한번쯤 생각해볼 만도 하다.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외국대학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나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외국대학이라는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 이런 대학들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제주도에 진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동경대학교가 태국에 공과대학 분교를 설치하였지만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제주도에서는 신입생 보장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하다. 최근 자치단체들마다 여러 가지 공세적인 교육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특수목적고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정도의 안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세적인 전략의 하나로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의 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sup>17)</sup> 국내 최초로 관·학 협력으로 외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설립되는 외대 부속 외국어고는

“외국인 기간제 확충이나 외국어고나 국제고 설립, 외국어담당교사를 장기간 해외 연수시켜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17) 2002년 12월 6일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후 외대 용인캠퍼스 총장실에서 ‘한국외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2005년 개교 예정으로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반을 2학급 설치, 대부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외대교수가 일부 수업 또는 특강을 수시로 실시하고 교사는 박사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2외국어 교사는 원어민을 채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을 위해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제주도가 더욱 공세적인 전략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형편에서 과연 소망대로 우수한 외국대학을 과연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뿌리깊은 선호도를 고려할 때 과연 제주도에서 외국대학들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의 고등교육서비스에 기대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 교육과 대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반드시 외국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면 이런 점에서 분명 우수 외국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수도권 선호를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 학생들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관광명소로 부상하려는 제주도의 의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외국의 유명 호텔학교, 요리학교 등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남제주군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 시에 있는 DCT 국제호텔경영학교가 남제주군지역에 분교 설립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학교측에서 요청중인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DCT 측에서는 5만평의 부지 제공(임대)을 요청하면서 2005년초 개강을 목표로 8백억원 가량을 투입, 호텔학교 분교와 국제어학원, 호텔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분교(分校)를 자신의 마을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선호 경향을 조사해볼 때 직업교육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일반 대학교육이나 대학원교육 위주여서 전문대학 수준의 호텔학교, 요리학교 등은 학생모집에 한계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고 특성화된 외국전문대학을 유치하려는, 다

18) <한라일보>, 2002년 9월 26일

19) 최근 DCT측은 경희대학교와 호텔관광경영 공동 유학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경희대 사회교육원에서 1년 수학 후 스위스 DCT호텔학교에서 2년을 수학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가 하면 숙명여자대학교는 세계최고의 요리

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특화 전략이 없다면 외국대학 유치는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이다.

### 5. 지역 소재 대학과의 외국대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직접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대학들은 아마도 초기에는 직접적인 국내 설립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작을 통한 프로그램 및 교수의 교류 형태를 선호할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외국대학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로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출 유형 중 예컨대 '국내기관의 하드웨어 제공 + 외국기관의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에 의한 협작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이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외국 측 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외국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대학은 우수한 외국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우수신입생을 모집하고 외국 측은 학점교류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려는 계산이지만 현재 그 의도만큼 현실적인 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정한 수학 기간과 성적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외국 의 본교로 유치하여 현재의 학위를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외국대학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분명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류의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집중육성은 장기적으로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 서로에게 득이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큰 것이 사실이다. 말레이시아<sup>20)</sup>는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은 주로 사립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

학교인 “꼬르동 블루”와 합작하여 ‘숙명-꼬르동 블루 아카데미’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모두 “사회교육원” 체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모집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남체주군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 말레이시아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를 참고.



교육프로그램의 높은 질과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외국 모(母)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교육체제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외국대학의 4년제 학위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에서는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외국대학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이점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母)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내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개설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TDP(Twinning Degree Programme), CTP(Credit Transfer Programme), ASEP(Advance Standing Entry Programme), 3+0 Programme, DLP(Distance Learning Programme) 등이 있다.

외국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분리학위개념인 TDP는 국내 사립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정식계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부분적인 과정을 국내 대학에서 마치고 마지막 해를 4년제 학위를 수여하게 될 외국 본 대학에서 마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CTP는 국내 사립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위해 고안된 4년제 학위취득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사립대학에서 과목의 기본학점 수강 시간을 채운 학생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학점을 외국대학으로 이전하여 4년제 학위취득과정을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학위를 받고 졸업하기 위한 기본 학점은 120학점이다. 학생들은 학점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내 사립대학에서 적어도 60학점 이상을 채울 수 있고 나머지 학점은 외국 모(母)대학에서 채울 수 있다. 이 학점이전 프로그램은 TDP 개념과는 다르게 융통성이 많아 학생들에게 많은 대학들 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TDP와 마찬가지로 외국 4년제 학위자격증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의 절대적인 절감이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ASEP는 개념과 목적에 있어 TDP 제도와 비슷하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국내 사립대학이 개설한 학과과정은 4년제 학위프로그램에 의해 외국대학 1-2년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국내 사립대학 안에 승인·개설된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모(母)대학에 가서 4년제 학위프로그램의 남은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점인정은 국내 사립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대한 모(母) 대학의 승인을 의미한다.

3+0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외국대학 4년제 학위프로그램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은 외국대학의 허락을 얻어 말레이시아에서 4년제 학위프로그램 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외국대학은 4년제 학위증서만을 수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이 말레이시아에서 끝나는 것을 '3+0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 '3+0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모(母)대학에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외국 4년제 학위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는 '1+2', '2+1' TDP의 연장이다. 이는 국내사립대학이 허가를 얻어 외국대학을 대신하여 모든 대학 학위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4년제 학위 증서는 외국 모(母)대학이 수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지 않고도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에서 영국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4년제 대학 학사학위증서를 위해 공부할 수 있다.

DLP는 인터넷, 화상회의, TV, 라디오, 인공위성,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 같은 전자수단 등 미디어교습지원, 자기학습인쇄물을 통해 4년제 학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과 국내 대학사이에는 정식협약서가 있다. 학생들은 때때로 강의실에서 선생들과 함께 면담을 가지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뛰어난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은 제주도 소재 대학들이 검토해 볼만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지역 소재 대학들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대학들이 공동으로 구상해야할 내용들이 분명하다. 말레이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 맡겨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의 하나로 지역 소재 대학들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을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많은 대학들도 말레이시아의 TDP와 같은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른바 공동학위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아메리칸대와 공동학위제 협약에 따라 공동학위과정을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법대 대학원생이 아메리칸 로스쿨에서 1년 간 수학하면 연대 석사학위와 법학석사(LL.M.) 학위를 동시에 받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

시할 자격도 줄 방침이다. 제주도 지역 소재 대학들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 6. 외국 사이버대학의 진출과 공동운영

외국대학의 국내 시장 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이버대학 진출이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첨단 통신매체의 발달과 사이버 교육시장규모의 확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진출로 인한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사이버 교육시장 규모가 2001년 63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30억 달러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2002년 현재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부실이 매우 심각하다. 15개 대학 중 7곳이 정원의 40%도 못 채우는가 하면 4개 대학이 출범 1년 만에 자본잠식상태에 이를 정도로 적자운영을 했다.<sup>21)</sup> 오프라인 대학생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2002년 하반기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체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향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외국의 우수한 사이버 대학들이 진출하게 되면 부실한 국내 사이버대학들의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국대학 유치의 가장 소중한 정책 과제야말로 외국대학이 들어옴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국내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대학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사이버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을 수단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한 유연한 교육환경으로서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의 진행과 더불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 축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재교육과 평생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21세기 주요 교육체제로서 정착될 전망이며 사이버대학은 새로운 대학체제로서 정착될 전망이다.<sup>22)</sup>

21)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출한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참고

22) 그런데 최근 MIT는 OCW(open course ware)라는 컴퓨터 온라인 무료교육 프로젝트를 시행, 2002년 10월부터 인터넷상으로 인류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 등의 학과목을 개설,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MIT는 앞으로 10년간 기존의 모든 교과과정을

새로운 대학체제로서의 사이버대학은 교수요원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교과목 별로 외부로부터 초빙하는 경우와 사이버대학의 운영을 교육서비스 사업차원에서 인식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sup>23)</sup> 만약 외국 사이버대학이 진출하는 경우 국내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운영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소재의 대학들도 이런 공동운영형태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과 더불어 사이버대학은 특정 지역과 국내 대학간의 교류가 아닌 국가 간의 실질적인 교육교류의 수단으로 발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소재의 대학들은 공동운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미국의 IMS(Instruction Management System) 산업체 표준과 IEEE 1484 표준안을 중심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성균관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제주도 소재의 대학들이 외국 사이버대학과 성공적인 공동운영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제휴를 모색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수-학습과정과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질적인 관리와 능동적인 교수-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수요자들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육환경에서 지적재산권 확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MIT가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 비디오 녹화 강연, 세미나, 실험을 공짜로 무한정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MIT는 온라인을 통한 학위 수여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온라인 교육 상업화 추세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도 모를 이런 프로젝트의 출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 사이버 교육기관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국 사이버대학의 진출 형태 역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 23) 이러한 사례는 특성화 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수의 교수요원들을 외부로부터 초빙해서 CEO의 책임 아래 교육서비스를 교육수요자에게 증계하는 Western Governor's University 경우와 의료기관의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캠퍼스 및 현재 California Virtual University의 컨소시엄 일원으로서 자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Golden Gate University의 경우가 매우 시사적이다.

수 있는 여건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서는 교육의 대상과 학습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사이버 교육방법의 개발, 통합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원 스톱 학사행정 지원체제 마련 및 인지도 제고 노력 등도 외국 사이버 대학과 공동운영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 Ⅲ. 결 론

제주도의 외국고등교육관 유치는 외국교육기관이 제주도에 직접 진출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전문대학원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 전략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의식하는 전략이라면 후자는 다른 것들에 비해 비교적 교육의 장기지속성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 유치 전략은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에서도 시행 예정이거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세적이고 특화된 외국대학 유치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해서는 대학 또한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외국어영재고등학교를 제주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의 신입생에게 외국대학 입학 보장을 연계시키고 제주지역을 위해서는 지역할당제로 일정 인원을 선발케 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대학 수준이 국내의 외국어 영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국대학에게 학생 모집을 일정 부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호텔학교와 같은 우수하고 특성화된 외국 전문대학을 유치하려는 특화 전략은 신입생 유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외국대학이 유치된다면 제주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마도 우수한 외국대학이 유치된다면 도내의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와 분명 연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대학 유치로 인한 경쟁은 초과공급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의 고등교육기관의 퇴출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적인 우수 외국대학이 유치된다면 도내의 대학들과는 경쟁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도내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우수한 외국 대학 유치와 병행하여 필요한 것이 제주도 소재의 대학들과 외국대학들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의 뛰어난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은 프로그램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역 소재 대학들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대학들이 공동으로 구상해야 할 내용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가하면 사이버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21세기 주요 교육체제로서 정착될 새로운 대학체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이버 대학과 제주도 소재 대학들과의 공동운영에 대한 참여는 매우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는 제주도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화 교육의 여건 조성은 물론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바램이 단순한 희망 사항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선택과 배제의 원칙으로서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한국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우수한 외국대학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적극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수한 외국대학이 아닌 중간급의 대학이라도 제주도에 들어와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집중과 공유의 원칙으로서 선택된 우수 외국대학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고 그 효과와 순기능을 제주지역과 비례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외국대학 유치로 인한 효과와 순기능을 지역과 공유하지 못할 때 시장 보호적 관점에서 저항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윤정일 외4인,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1992.8  
양진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고등교육의 변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 자료집,2002.11.  
정일환, 김정희, 주동범,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02.8.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각종 보고서  
제주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Brian J. McVeigh, 「Japanese Higher Education As Myth」, M. E.  
Sharpe ; ISBN: 0765609258; (June 2002)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